

“좋은 기획·예술가 삶 함께 고민하죠”

2021 새로운 출발

<5> ‘오버랩’ 김선영·‘장동콜렉티브’ 김소진

독립 큐레이터 그룹 선후배

비대면 해외 교류전 관심

‘오월 식탁’ 프로그램 확장

토론하고 소통하는 ‘과정’ 중시

지난 2015년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OverLab)’을 결성한 김선영(43), 박유영(32) 큐레이터는 마음에 담아왔던 꿈을 펼칠 공간을 소망해왔다. 2년 후, 광주 월산동 단독주택을 임대해 작은 전시장과 레지던스, 사무실을 갖춘 ‘오버랩’을 오픈한 두 사람은 그해부터 신진 기획자를 키우는 ICC(Independent Curator Collaboration·독립 큐레이터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활발한 활동을 펼친 20대 독립큐레이터 그룹 ‘장동콜렉티브’의 김소진(26) 이하영(26)씨는 2019년 바로 ICC에 참여했고, 기획자의 꿈을 확장할 수 있었다.

최근 몇년 사이 광주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보이는 두 그룹의 김선영·김소진씨를 만났다. 지역작가들과 의미있는 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 늘 머리를 싸매고, 적박한 현실 속에서 예술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기획자 선후배의 따뜻한 만남이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0명 중 한 명 정도만 지속적으로 활동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이 일과 생활을 함께 꾸려간다는 게 힘들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런데 장동 콜렉티브를 비롯해 3명의 친구가 현장에서 기획일을 하고 있으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오버랩은 5명 정도의 그룹을 생각했는데 미술 현장에 시각 예술 큐레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ICC 프로그램을 통해 동지를 찾고 싶었는데 후배들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 같습니다.”

김선영 큐레이터는 “ICC를 운영하며 젊은 세대들이 고민하는 지정, 사회적 이슈와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을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ICC는 3개월 동안 세미나를 진행한 후 기획안을 발전시켜 한달 반 동안 전시회를 진행하는 식으로 짜여지며 참여자들은 일련의 과정을 에세이로 쓰며 과정을 마무리한다.

“저희 프로그램은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단순히 ‘미술’ 기획이 아니라, 기획에 대한 A부터 Z까지 함께 배워 나가다 보면 개인의 삶을 움직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도를 하거나, 가르치는 대신 질문을 많이 던지는 편입니다.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죠. 보통 전시는 작품을 보여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기획자, 참여작가가 함께 주제를 끌어내 소통하고 작업을 연결시키는 그 ‘과정’들을 중요시하죠. 장



광주의 대표 독립큐레이터 그룹인 ‘오버랩’의 김선영 큐레이터(왼쪽)와 ‘장동콜렉티브’의 김소진 큐레이터.

동 콜렉티브의 기획들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김선영)

조선훈에서 미학미술사를 함께 공부한 장동콜렉티브 두 사람은 학부 때 ‘오버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선배 큐레이터 그룹”이라는 소문이 자자했고, “우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장동콜렉티브는 프로그램 참여 후 ‘알만 보고 걸어가라 불나비’라는 타이틀로 90년대생 포래들과 연대해 기획전을 진행했다.

ICC출신으로는 ‘오월 오르골’을 제작했고 지난해 ‘오월전’에 큐레이터로 참여한 후 역사와 예술을 접목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 대안으로 유학을 떠난 박은현씨와 산수시장에서 ‘산수싸리’를 운영하는 김민지씨의 행보도 눈에 띈다.

장동콜렉티브는 지난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광주시립미술관의 5·18 40주년 기념전 ‘별이 된 사람들’전에 최연소 참여작가로 함께 했고 ‘정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뫼단배 프로젝트’, 텀블벅으로 기획한 ‘This is Our Green place: 분노 이후를 상상하기’전을 열었다. 또 518재단이 공모한 연대사업에도 선정돼 ‘오월’을 소재로 광주와 서울 지역 청년작가 교류전을 진행했다.

‘오버랩’은 지난해 ‘Way of Survival’전 등 비대면 전시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기획에 역점을 뒀다. 또 ICC에 참여했던 신진 큐레이터들의 네트워크를 다지고 해외 전시에서 디렉터 경험을 한 선배 큐레이터 세대들의 노하우를 듣는 워크숍 등을 진행하는 등 심화된 ICC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의 생존 방식에 대해 자연스레 고민하고 예술의 위와와 응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오버랩의 주된 기획

국제 교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11월 비대면 전시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봤고, 올해는 더 발전된 모습의 기획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규모 상설문화들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맞게 지원시스템도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18 40주년 기념 ‘오월전’ 책임큐레이터로 참여했던 김선영 큐레이터는 올해는 오버랩 자체 기획으로 5월 관련 전시를 준비중이다. 오월에 한발 더 나아가 ‘역사적 트라우마’를 주제로 한 전시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4월 16일~5월23일)에서 열 계획이다.

장동콜렉티브는 한 템포 쉬어간다. 기획전을 줄이는 대신 자신들의 대표 프로그램인 ‘오월식탁’이 지향하는 오월광주의 절대 공동체의 숭고한 가치를 전시 등 다채로운 시각예술로 풀어내는 방식을 고민할 예정이다.

“장동콜렉티브는 하영이와 저의 끊임없는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들에서 출발하는데, 지난해에는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마음 속에 담아왔던 기획들을 모두 소화하느라 일정을 촘촘히 짜고,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그래서 잠시 충전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마침 올해 소진 씨는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경영관광 전공 과정에서, 하영씨는 전남대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돼 각자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광주의 문화판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오버랩’과 ‘장동콜렉티브’의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한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연의 문화카페

초록색 잔디와 빨간색 조형물이 어우러진 라빌레트 공원은 한복의 그림자였다. 돛자리를 깔고 일광욕을 즐기는 금발의 미녀, 아빠와 배드민턴을 치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 아이들. 자동차 소음과 매연이 가득한 파리 시내와 달리 평온한 기운이 감도는 낙원이었다.

벌써 6년이 지났지만 파리 라빌레트 공원의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건 공원 곳곳에 설치된 ‘폴리’다. 광주폴리의 모델이기도 한 빨간색 조형물은 강렬한 존재감을 뽐냈다. 빨간색의 강철에 10m 높이의 네모형태로 디자인된 34개의 폴리는 레스토랑, 전망대, 카페, 도서관, 인포메이션 센터 등 다양했다. 이방인의 눈엔 플라카에서 커피

다. 그중에 하나가 ‘99칸’이다. 지난해 말부터 충장로를 오가는 행인들에게 “해피 뉴이어(HAPPY NEW YEAR)”라는 신년 메시지를 전하며 어두운 밤거리를 화려한 빛으로 감싸고 있다. 광주시로부터 폴리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광주비엔날레재단(재단)은 올해부터 30개 폴리 중 11개를 대상으로 노후 작품 보수, 작품이 설, 아트조명 등의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2-3개의 폴리를 신설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폴리의 ‘변신’은 연초 그 어떤 지역 문화계의 뉴스보다 반갑다. 사실, 폴리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매머드 프로젝트였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부족해 아직까지 제자리를

“폴리야 놀자”

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게 신기해 보였다. 수동적 감상의 대상인 오브제나 아니라 시민들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이었다.

솔직히, 광주는 폴리에 대한 추억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난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특별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 폴리는 쇠락한 구 도심에 되살리기 위한 카드로 옛 광주 읍성터에 10개가 설치됐다. 하지만 디자인비엔날레 개막일에 맞춰 급조된 탓에 주변 건물이나 시민들의 동선과 충돌하면서 일부 작품은 애물단지가 됐다. 광주 중앙초교의 ‘광주사람들’이나 금남공원 인근 ‘유동성 조절’, 충장로 파출소 앞의 ‘99칸’이 대표적이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광주폴리가 명예회복에 나선다는 소식이야. 오랫동안 시민들의 눈총을 받았던 몇몇 폴리가 리노베이션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것이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소통의 원두막’(장동 교차로), ‘광주사랑방’(아시아문화전당) 등은 장소성을 살리고 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지역사회와 통(通)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폴리가 광주에 첫선을 보인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문화자산이 될 가능성도 인정 받았다. 광주의 거리를 수놓고 있는 30개의 광주폴리는 다른 도시에서 보기 힘든 관광자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속적인 마케팅과 홍보다. 새로운 폴리들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작품’들을 알리고 이들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화가 먼저다. 하루 빨리 파리 라빌레트 공원처럼, 광주 시민들이 폴리와 친해지면 좋겠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올해 첫 GB작가스튜디오탐방은 김설아 작가

29일 온라인 생중계



‘물의 흐름’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첫 번째 GB작가스튜디오탐방으로 김설아 작가를 만난다.

이번 탐방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김 작가의 신안동 작업실에서 29일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로 열린다.

여수 출신인 김 작가는 나고 자란 마을에 대규모 화학 단지가 들어선 것을 목격하면서 사라진 고향과 존재에 대한 흔적들을 소재로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화폭에 등장하는 생명이 다한 재, 먼지, 깃털, 벌레, 미생물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시적인 것들과 소멸하는 것들은 결국 과거의 시간과 역사로 확장된다.

2016광주비엔날레에 참여했던 김 작가는 전남

대 미술학과와 바로다 마하라자 사야지라오 예술대학 순수예술학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2013년 인도에서의 첫 개인전 이후 4회의 개인전과 2011년부터 13회의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인도와 일본 등지에서 예술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홈페이지 ‘작가스튜디오탐방’ 메뉴를 통해 작가의 리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